

“십자가의 길” 그들은 무엇을 포기했나?

모든 재산 포기 PCUSA 탈퇴 시온장로교회 교단 개혁위해 싸우는 믿음의 동료들 축복해

최근 시온장로교회의 PCUSA 교단 탈퇴가 전 미주 한인교계에서 큰 화제가 된 가운데 이 교회 담임 이철훈 목사가 페이스북에 “동료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 우리 일이 그 분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회가 속한 새크라멘토노회는 타 노회와는 달리, 노회 소속 교회가 재산을 유지한 채로는 교단을 탈퇴할 수 없도록 ‘은혜로운 결별 정책(GDP)’을 지난 5월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장로교회는 지난 8월 30일 공동의회에서 성도 97%가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성도들은 교단 탈퇴가 약 300만 달러 상당의 교회 재산을 모두 잃게 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 교회에는 현재 약 300여 명의 성도가 출석 중이다.

이철훈 목사는 “며칠 동안 많은



시온장로교회 이철훈 담임목사

분들이 저희 교회의 결정을 축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알려지면서 제 마음 속에 무거움이 생겼다. 저와 교인들의 결정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이었다. 우리가 남다른 믿음이 있거

나 용기가 있고 의로워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아직 교단에 남아 있는 400여 교회와 동료 목회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어찌 보면 교단을 나가겠다는 우리의 결정은 쉬운 결정이다. 교단에 남아서 교단을 개혁하겠다고 결정한 다른 모든 한인교회의 결정이 더 용기 있고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들은 다른 이들의 비난과 오해와 정죄를 감당하면서 교단을 개혁해 나가는 분들이다. 우리 일이 그 분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결정을 한 교회를 폄하할 수가 없다”면서 “믿음의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 가는 동료 목사님들과 교회를 축복한다. 그들은 참으로 힘든 싸움을 하는 외로운 믿음의 전사들이다”라고 했다.

김준형 기자

자유포기 구속선택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 불가 김 데이비스 구속 5일만에 당당히 풀려나다



김 데이비스 캔터키 주 법원 서기

동성애자 커플 결혼허가증 발급 거부로 구속됐던 캔터키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김 데이비스(여)가 구속된 지 5일 만이자 6일 쯤인 8일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다.

법정모독죄로 데이비스의 체포 명령을 내렸던 버닝 판사는, 이날 데이비스가 체포돼 있는 동안 그녀의 부서기들이 결혼허가증을 발급 해준 것에 만족한다면 석방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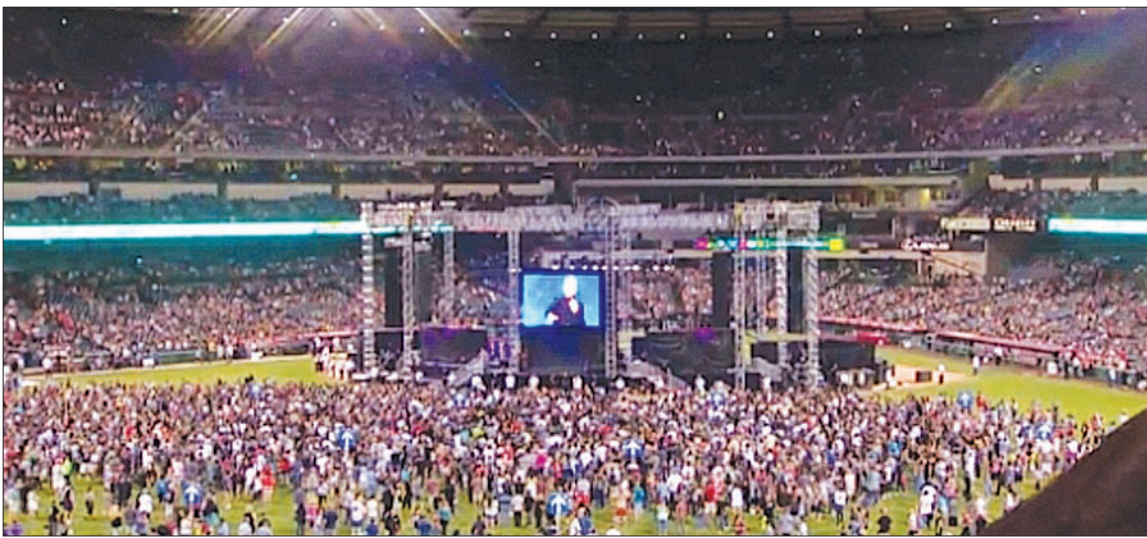
을 내렸다. 그러나 버닝 판사는 데이비스에게 앞으로도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또한 이와 함께 2주마다 이들 부서기의 결혼 허가증 발급 상황을 보고케 했다.

버닝 판사의 석방 명령은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의 데이비스 방면 직전에 내려졌다.

데이비스는 수감 중 담담하고도 편안한 가운데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보냈다. 그녀는 디모데후서1장 7-8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앙심을 재확인 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그녀는 성경 진리에 반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타협할 수 없음을 삶으로 실천한 것이다.

한편, 데이비스가 석방되던 교도소 앞에는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흰 십자가를 흔들며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공무원의 법 준수 의무와 종교자유 보장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인 기자



美 하베스트교회 그렉 로리 목사, 수만 명 운집한 집회서 전도

미국 하베스트교회의 그렉 로리 목사가 “현대인들은 죄로 인해 공허, 외로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리 목사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총 6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에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전도집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교회 성장 막는 6가지 이유”

톰 레이너 박사 ... 교제로 바빠 전도할 시간 없어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의 전문연구기관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의 회장 겸 CEO 이자 빌리그래함선교대학원 학장인 톰 레이너(Tom Rainer) 박사는 최근 “오늘날 교회 성장이 더 어려워진 6가지 이유”라는 기고를 통해 성장이 멈추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레이너 박사는 “한 목회자 친구

로부터 ‘20년 간 목회자로 교회를 섬겨왔는데, 오늘날처럼 교회 성장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어.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라는 질문을 받았다”면서 “오늘날 교회 성장이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대해 다음의 6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8면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대표 주해홍 목사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탈북자 자녀 장학금” 마련 바자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후원과 참여 요청

“어려움에 처한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도 적극 돕겠습니다. 소외 받은 우리 이런 관심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남가주 탈북자 단체 엔키아선교회(NKIA, North Korean In America)의 김창호 회장은 여성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전했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는 탈북자 자녀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오는 10월 연다.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물품과 기부금을

후원 받아 장학금을 조성하게 된다. 남가주 지역 내 100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킨더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20명 안팎이다. 여성목사회는 이 학생들의 학년과 나이에 따라 금액에 차이는 있었지만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 목표다.

회장 강지원 목사(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는 “여러 물품을 후원 받고 김치 등을 직접 담가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바자회 판매 수익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원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탈북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10월 기금 모금 바자회를 연다.

이 많이 필요하다. 또 이 행사를 계기로 탈북자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라 밝혔다. 이 행사는 10월 15일, 16일, 17일

한우리장로교회에서 열리며 각종 물품과 후원금은 한우리장로교회(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로 보내면 된다. 이에 대해서

는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강지원 회장 323-702-6709, 정경희 총무 323-735-9191 김준형 기자

LA선교교회 이취임감사에배

박성도 목사 24년 중남미 선교지로 다시 떠나...후임에 장태원 목사 취임



LA선교교회를 개척해 2년2개월간 시무했던 박성도 목사가 니카라과로 떠나고 장태원 목사가 취임했다. 사진 앞줄 중앙이 장태원 목사와 박성도 목사.

그에게 호(號)를 붙여 준다면 ‘기인(奇人)’이 제격인 사람이다. 기인 박성도 목사.

1989년 32살에 코스타리카를 선교하겠다고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 1천 달러를 들고 인디오투이 거주하는 고산악지대로 들어가 손짓 발짓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20년 만에 10개 교회를 개척하고 수천 명의 영혼을 구했다. 좀 편해 질까 싶더니 이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다 넘겨준 후, 이번에는 니카라과를 선교하겠다고 도시 빈민들을 찾아갔다. 이곳에서는 수도인 마나과에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교까지 세워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24년 선교한 후, 2년여 간의 안식년을 허락받아 LA로 ‘쉬기 위해’ 온 박성도 목사는 “LA도 선교지”라는 마음을 품게 됐다.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던 미국에도 여전히 불신자들이 많으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타민족이 수백에 이르는 것이다. 다만 그가 섬기던 중남미 선교지와 다른 점은 이곳 사람들은 선교를 후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크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LA 한인타운에 LA선교교회를 개척했다. 자신이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에 이 교회를 가입시켰다. 자신이 LA에 머무는 동안 잠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LA를 복음화하고 선교에 헌신할 교회를 꾸민 게 분명하다. 그와 아내 이렇게 2명이 시작한 교회는 이제 2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그는 후임으로 장태원 목사를 청빙하며 “2년 만에 10배 부흥했으니 앞으로 2년 뒤에 또 10배 부흥하길 바란다”고 비장하게 말했다.

그는 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예배에서 그동안 교회 재정 상황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잘 지출됐다”고 보고했다. 박 목사는 “성도들에게 헌금 부담을 안 주었지만 이제 매달 4천 달러 예산을 사용하는 교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할 때는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자기 돈을 투자할 수 없냐’라는 생각으로 “개척 자금 2만5천 달러를 현금했다”고 밝혔고 이 현금으로 지난 2년 2개월간 여러 교회 비품을

구입하고 교회 건물 보증금을 냈으며 한 달 치 렌트비도 미리 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돈 1만4천 달러는 제가 선교비로 다시 받아가겠다. 이 돈이 있어야 제가 남미에서 또 선교할 수 있다”고 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성도들에게 “내일 비행기 타고 LA 떠나면 이제 못 본다. 지금 사진이나 찍자”고 통명스런 위로를 건넸다.

박성도 목사가 떠나고 장태원 목사가 취임하는 감사예배에는 9월 6일 오전 11시 주일예배와 겸해 드렸으며 교단 관계자도, 축하객도 없이 이 교회 성도들만 참석해 아쉬움을 달랬다. 화환이나 대단한 식사도 없었다. 전 교인이 기념촬영을 하기 전에 이 교회 장로 한 명이 급히 꽃다발 2개를 건네준 게 전부였다. 새로 부임하는 장태원 목사는 “박 목사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평생에 이런 분은 처음 본다”고 허를 내들었다.

그렇게 성도들은 기인 박성도 목사, 아니 하나님의 사람 박성도 목사의 니카라과 사역을 축복하며 예배를 마쳤다.

김준형 기자

“은혜와 경영의 조화”에 최선

미주복음방송 4대 사장 임덕순 장로 임명

미주복음방송 이사회가 제4대 사장에 임덕순 장로(감사한인교회)를 임명했다. 임 장로는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사장에 공식 취임한다.

미주복음방송은 지난 1991년 2월 임종희 목사가 설립해 초대 사장으로 섬기다 2011년 4월 박신욱 목사가 2대 사장, 2014년 9월 송정명 목사가 3대 사장에 각각 취임한 바 있다. 이번에 4대 사장에 취임하게 되는 임 장로는 현재 국제하나사랑재단 회장이며 한동대학교 미주후원회장, CGNTV 미주후원회장,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사 및 장학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평신도 리더로서 그동안 다양한 교계 사역을 후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왔기에 미주복음방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특히 재정적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복음방송은 2011년 자체 채널 AM1190을 1천200만 달러에 구매한 이후 현재 용자를 갈아가고 있는 중이며 “24시간 예수님만 전한다”는 슬로건 아래 모든 상업 광고를 배제하고 오직 성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임 장로는 “미주 기독교 방송의 대표격인 미주복음방송의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두렵고 떨린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 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



임덕순 장로

는 미주복음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LA 동포 사회를 넘어 전 미주와 세계, 북한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립 당시 장로였던 임종희 초대 사장이 방송국 설립 후 5년 뒤 목사로 인수받은 것을 고려할 때, 약 20년 간 미주복음방송의 사장은 목회자들이었다. 임덕순 신임 사장은 장로가 사장에 선임된 것에 대해 “은혜와 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미주복음방송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식 장소는 당초의 미주복음방송 사옥에서, 공사로 인한 교통 및 주차 불편 등의 이유로 인해 가든스위호텔(681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로 변경됐다. 김준형 기자

18-20일 남가주 밀알의 밤에 가수 바다 초청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올해 “밀알의 밤” 행사에 가수 바다를 초청한다. 1997년 S.E.S.로 데뷔한 그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며 최근 뮤지컬 가수로 변신해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밀알 측은 “바다는 독실한 신앙인

으로 인생의 시련과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진솔하게 나누어 한인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위로와 용기, 비전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 밝혔다.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657-400-9570, smilal@milalmission.com)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나성언약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교회

1965. 9. 19 교회 창립 / 베다니 교회 412 W. Slauson Ave. LA.
1980. 1. 27 교회당 이전 / 2226 Fargo St. LA CA 90039
1981. 11. 1 교회이름 변경 / 나성성약교회
1988. 7. 31 교회이름 변경 / 나성언약교회
1999. 3. 21 교회당 이전 / 5260 Lincoln Ave. LA CA 90042

일시 : 2015년 9월 20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 나성언약교회 예배당



초대목사 김학철 목사 1965~1981



원로목사 안정남 목사 1981~2008



담임목사 이순환 목사 2009~ 현재

- 원로장로 : 이기환
- 시무장로 : 박용석, 박희도, 이경전

나성언약교회
Korean Covenant Church of Los Angeles
5260 Lincoln Ave. LA CA 90042
Tel:(323)349-0691, (213)505-3838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LA기윤실) 동족사랑나눔운동 본부장 유용석 장로가 이른바 18번으로 평생 애창한 노래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다. 충남 당진 태생인 그는 먼저 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찾아 세 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 만주 북간도로 가면서 '푸른 물이 출렁이는 두만강'을 건넜다. 해방 이듬해의 귀국도 그 물길을 통해서였다. 그후 20대 중반까지 약 5년간 평양과 진남포에서 살다 1.4후퇴 때 배를 타고 월남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5>

기윤실 동족사랑나눔운동 본부장 유용석 장로



LA기윤실이 북한 라선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빵공장의 모습(왼쪽)과 이 빵을 통해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는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

마지막 생명의 불꽃 태워 끝까지 동족 사랑

교사, 무역회사 중역 등으로 일한 그는 1976년 미국에 이민 와 1993년 교회 개혁, 생활신앙 운동, 사회봉사 장려, 동족 돕기 등에 앞장서는 LA기윤실의 출범에 산파역할을 했다. 이 단체의 실무책임자를 맡아 겨레의 남루한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1925년생으로 올해 나이 90세. 얼마 전 실무 책임자 자리는 내려놓았으나, 여전히 동족사랑나눔운동 본부장으로 초심을 간직한 채 섬김의 일선에서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있다.

그는 1997년 이래 20여 차례나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오갔다. 지난해 9월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기윤실이 직접 운영하는 라선시(라진 선봉)의 빵공장을 방문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때도 다리 아래로 민족의 애환의 역사를 담은 두만강이 흉탄물로 흐르고 있었다.

유 장로는 본보 인터뷰에서 "기윤실이 고 통 당하는 동족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나부터 사랑으로, 나부터 바르게'가 우리의 모토니까"라고 말했다.

연 15~20만 달러 규모인 기윤실 예산의 80% 이상은 북한 주민,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등을 위해 쓰인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이다.

1996년 중국 연길시에서 빵을 만들어 북한으로 갖다 주는 것으로 시작된 이 일은 1997년 회령에 빵 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발전했고 그후 무산을 거쳐 라선시로 시설을 옮겨 계속되고 있다.

"아담하고 청결한 우리 빵공장에서 잘 훈련된 여직원들이 새로 보낸 제빵기계로 맛있는 빵을 만듭니다. 빵은 인근 농촌지역의 유치원과 탁아소에 배달되어 아이들의 양식이 되고요. 모든 과정을 미국에서 파견된 우리

기독교윤리실천운동미주창립에산파역 20회 이상 방북 굶주린 어린이들 위해 사랑의 빵 · 기적의 젓염소 사업 등 전개 90세 노구 이끌고 오늘도 섬김에 앞장

책임자가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생산하는 빵은 5만 개 정도로 약 1,500명의 어린이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한다. 기윤실은 의료기기와 약품을 구입해 병원에 전달하기도 한다.

"개인 및 교회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보다는 개인들이 훨씬 많은데 대개 '동족방문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같이 중국과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현지의 어려운 형편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동참합니다."

유 장로에 따르면 북한이 어려울 때 민간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도운 것은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기윤실이 처음이었다.

기윤실은 1997년부터 약 9년간은 하루 2~3Kg의 젓을 생산하는 '기적의 젓염소 보내기 운동'을 펼쳤다. 일반 염소보다 10배가 비싼 2,000여 마리의 젓염소가 평양 인근과 회령, 종성, 라선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 보급돼 식량난 해결에 기여했다.

"다들 북한의 동족을 돕는다고 나서지만 대부분 몇 년 하다가 그만 두지요. 우리처럼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 당국도 기윤실이라면 믿어줍니다. 동족방문을 간 미주 한인들에게 장마당 구경까지 허용하고요.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거의 20년간 사업을 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기윤실은 중국 연길 '작은 천사의 집'을 통

해 탈북 소년소녀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미국 내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사업도 수 년 동안 펼쳤다.

또 부모들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가는 바람에 탈선하기 쉬운 중국의 조선족 학생들과 조선족 목회를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매년 2만5,000여 달러를 보내고 있다. 태환장학회를 통해 벌이는 이 사업은 자긍심을 갖고 공부에 힘써 북경대를 가는 장학생들도 나오는 소담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

이밖에도 카직스탄과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 돕기까지 할 정도로 동족사랑 활동의 스펙트럼이 넓다.

한 때 교회와 개인을 포함 600~700곳에 달하던 기윤실의 후원자는 현재 160~170곳 정도로 많이 줄었다. 그 이유를 묻자 "우리 민족이 꾸준히 좀 부족하잖아요"라는 간단한 답이 돌아왔다. 그는 연말이면 후원자들에게 연하장을 겸한 감사편지를 요즘 받아보기 힘든 손글씨로 쓴다. 그동안 보낸 편지만도 2~3만통에 달한다. 이같이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딸'에 넉넉을 얻기도 했다.

한 평생 주변에 울골은 모습을 보여주며 섬김과 나눔의 본보기로 살아온 유용석 장로. 겸박과 겸손은 그의 지병인 듯 했다.

기자를 만난 날도 그는 정말 오래되어 보이는 양복바지를 입고 나왔다. LA기윤실 관계자가 일전에 한 언론의 '칭찬합니다' 코너에 그의 이야기를 보냈다가 나무람을 듣기도 했다. 그 관계자는 이렇게 썼다. "늘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챙기고 돌보시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하나도 허투루 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단별 신사이십니다. 한번은 지인들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일선에서 동족 돕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유용석 장로.

이 유 장로님의 지나온 삶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양복을 선물하려 했습니다. 계속 마다하시더니 결국 조건을 달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옷은 내가 입기에는 과분하기에 사양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것이니,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가는 길에 입혀 달라.' 그 양복은 아직도 장로님의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이번 인터뷰를 고사했다. 잔잔한 그의 미소가 긴 여운을 남기는 인터뷰를 마친 후에도 "내 스토리보다 기윤실 사역 위주로 써 달라" "늙은이가 노망 났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다" "기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는 칭찬과 상급은 오직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요량인 것이 분명했다.

후원 문의: 213-387-1207

김장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최신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선교바자회를 통한
탈북민 장학기금 마련 행사

일시: 10월 15일, 16일, 17일(오전 10시30분~오후 7시30분)
장소: 한우리장로교회

주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워싱턴과 10th Ave)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협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엔키아선교회
후원: 라디오코리아, 각 기독교언론사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탈북민 장학기금 마련 행사를 갖습니다. 각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새 물품과 중고 물품 및 기부금을 후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 강지원 목사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문의전화: (323)702-6709, (323)735-9191



수련회에 참석한 OC교협 임원들과 OC지역 원로목회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OC교협, 원로목회자 위로 야외수련회” 개최 목회 선후배 함께 하며 돈독한 정 나눠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9월 3일 오렌지카운티 지역 원로목회자 부부 60여 명을 초청해 엘시노의 한 온천에서 일일 야외수련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 30분 온천에 도착한 원로목회자 부부는 예배부터 드렸다. 윤덕곤 목사(OC교협 대외관계 부회장)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선자 목사(OC교협 여성분과위원장)가 기도하고 김기동 목사(OC교

협 회장)가 “복음이 중심인 삶(빌 1:18)”이란 설교를 전한 후 최승구 목사(OC원로목사회 회장)가 축도했다. 이후에는 온천욕을 하며 피로를 풀고 점심 식사와 레크리에이션으로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원로목회자들은 게임도 즐기고 OC교협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최승구 OC원로목사회장은 “오래 간만에 원로목회자 부부들이 온천

에 와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모두 기쁘고 즐거웠다. OC교협에서 원로목회자들을 위하여 좋은 행사를 준비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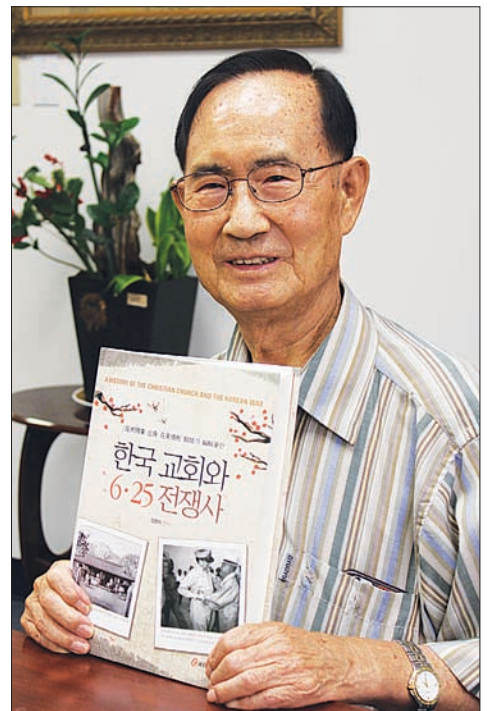
김기동 OC교협회장은 “은퇴한 원로목회자 부부들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반공포로 출신 목사가 말하는 6·25 전쟁”

김창식 목사...〈한국 교회와 6·25 전쟁사〉펴내

김창식 목사(86)가 〈한국 교회와 6·25 전쟁사(쿠팡출판사)〉를 펴냈다. 584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김 목사가 여러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내용을 편집한 후, 자료를 보강해 출판됐다. 한국교회사 중 연구가 다소 미약했던 6·25 전쟁을 중심으로 그 전후(前後)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창식 목사가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고 있다.

김 목사는 6·25 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참전해 국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하며 혈서를 작성했던 반공포로 중 한 명이다.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목회자가 되어 평생을 목회에 바친 그가 은퇴 후, 자신의 경험과 객관적 자료를 책에 담아낸 것이다.

6·25 전쟁을 가운데 두고, 전쟁이 있기 전 한국 기독교 전래부터 일제 치하 신사참배 등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전쟁 후로는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인물들이 활약했는지, 어떤 신학 사조가 유행했는지까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목사는 “6·25 전쟁사 탐구에 주력하던 중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면서 ‘전쟁이 다시는 없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며 보호해 주시느니를 깨달았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와 기원을 담는다”고 했다.

김 목사는 송실대 철학과와 서울

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은퇴 후에 본격적인 학업을 재개해 캘리포니아센트럴대에서 신학 박사 학위와 국제개혁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9년 신촌성결교회 교육전도사를 시작으로 서대문교회, 담심리교회 등에서 담임으로 시무하다 이민과 선행드한인교회에서 25년간 목회하고 은퇴했다. 현재는 마테데스신학교, 캘리포니아센트럴대, 국제개혁대에서 가르치며 동시에 해외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저서에는 목창균 박사(서울신대 전 총장), 최근 타계한 성결교단 원로 고 이만신 목사, 류종길 목사(미성대 총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추천사를 썼다.

김준형 기자

“나눔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행복의 시작”

오픈청지기재단 ...19일(토) ‘사랑과 나눔의 현장’ 될 비영리단체 박람회 개최



오픈뱅크 민 김 행정

매년 오픈청지기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이 한인사회의 비영리단체들을 알리는 비영리단체 박람회를 개최하는 설명회가 9일 오전 오픈뱅크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람회는 오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쿨사마리탄병원 모슬리-살바토리 컨퍼런스센터(637 S. Lucas Avenue, Los Angeles, CA 90017)에서 열린다.

오픈청지기재단이 주최하고 오픈뱅크와 쿨사마리탄병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Love of Sharing’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된다. 한

인사회에서 처음 열리는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박람회로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들이 초청돼 이들의 활동을 홍보하게 된다. 특히 비영리단체들이 한자리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비영리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이들의 활동과 봉사가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평소 후원과 봉사의 기회를 찾는 이들에게도 좋은 정보 교류의 장이자 교육의 장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박람회날 오전에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거주위원회의인 영 김 의원과 에브리데이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홍주 목사가 강연자로 나서 행복한 나눔과 나눔의 실천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강연과 함께 학생들의 울동과 노래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갓스이미지의 공연도 펼쳐진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비영리단체들의 홍보가 진행된다. 이번엔 초청된 비영리단체 20곳은 각자의 부스에서 자신들의 활동과 후원 및 봉사

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게 된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많은 경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또한, 가족단위로 박람회를 찾은 한인들을 위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오픈청지기재단의 김옥희 이사장은 “오픈청지기재단과 오픈뱅크가 지난 4년동안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교류 및 정보교환, 상호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올해 한인사회 최초로 비영리단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한인들이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함께 나누고 봉사하며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오픈뱅크는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오픈청지기재단을 통해 실천에 옮기며 한인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의는 오픈뱅크청지기재단(성제한) 전화(213-593-4885) 이메일: jehwan.seong@myopenbank.com

이영인 기자

KCCD 제14회 주택구입박람회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가 제14회 주택구입박람회를 연다. 주택 관련 전문가들과 은행 관계자들을 이 자리에서 직접 만나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이 행사는 유니온뱅크, US뱅크, BBCN뱅크, 월셔뱅크,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후원한다. 박람회 입장은 무료이다.

일시: 9월 19일(토) 오전 9시-오후 1시/장소: 월셔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5)/문의: www.kccd.org(전화 213-985-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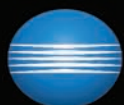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 EmpireDirect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신행 일치 신앙교육을

사무엘상 2:27-3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가르침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사는 진리에 입각하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어 생활의 신조로 실천해야 합니다. 교사가 실천으로 본을 보일 수 있을 때, 교사와 학생들 피차간에 유익을 주고 보람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의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 다니는 자녀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세상 학업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나 기술로 아무리 다양한 전문직 자격증을 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신다면 그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실패한 신앙교육: 엘리제사장 가문

엘리제사장은 40년 세월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신정정치에 사자로 세워졌습니다. 그에게는 흡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삼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40년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의 자녀 교육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키웠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막에서도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심부름꾼을 시켜서 자기들이 취하고자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먼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다음에 가져가라고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빼앗아 가져가는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제사장이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2절 이후에 보면 흡니와 비느하스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양떼의 제사를 짓밟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종들까지 성적으로 짓밟아서 음란의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23-24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이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는 좋은 말로 타이르고 끝냅니다. 즉,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녀들로 하여금 그 모든 악한 행실을 완전히 회개함으로 중단시키고 거듭나도록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

식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겼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제 회개할 기회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2장 25절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흡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상 23장 13-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매질해서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녀들을 매질해서라도 회개시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형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 실패한 신앙교육의 결국: '이가봇'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자식을 신앙과 영적 소망으로 교육 시키지 않은 죄 값으로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자 두 번째 전투에서는 법궤를 매고 나가게 됩니다. 하

님의 법궤를 믿고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시지 죄인들의 하나님은 되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패한 것은 물론이고 매고 간간 법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이 전쟁으로 흡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만삭이 다 되었습니다. 전쟁은 패했고, 법궤도 빼앗겼고, 시숙과 남편은 전사했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얻으려서 낳고 바로 죽어 갑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의 가문은 멸문패가를 당합니다.

그런 이후 3장 19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사무엘로 바꿔버리십니다. 사무엘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엘리 가문이 패가멸문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들의 신앙교육을 너무나 등한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녀교육의 초점을 신앙교육에 맞추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매질을 하면, 그 뜻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후사로 삼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국 선교 설교 | | | |
|---------------|--|---|--|
| TV 한국 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경북 기독 신문 | 3면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외 선교 설교 | | | |
| TV 미국 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
| CTS TV |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미국 신문 설교 | |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기독일보 |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 3. 주요사역 :**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 4. 제출하실 곳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 5. 제출마감 :**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1)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약소국 한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힘이 다스리는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비극적 역사를 맞는다. 1905년 7월 27일 미육군성 장관 테프트(W.H.Taft)와 일본 수상 계태랑(桂太郎 가츠라 다로)와의 사이에 소위 '가츠라-테프트 메모'라는 비밀협정이 조인됐다.

이 협정은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하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침략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 해 11월 일제는 저지육의 을사늑약(乙巳勅約)을 강압적으로 선포하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의 식민화를 구제화했다. 1907년에는 정미(丁未)조약을 역시 강제해 한국 군대와 경찰을 해산해 사실상 국권을 장악했다.

또한 '해아(海牙:Hague)밀사사건'을 트집 잡아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켜 왕권까지 좌지우지하면서 급기야 1910년 한일병탄을 이루고 말았으니, 500년 조선왕조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때부터 시작된 일제의 한국 침탈 역사는 저들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패퇴하여 이 강도에서 물러날 때까지 무서운 박해와 착취로 점철됐다. 고난 세월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해 1907년에 독(獨)노회가 조직되고, 1912년에는 장로교 총회가 창립됐으며, 감리교회도 연회를 조직하고 선교와 교육에 전념하며 때를 기다리게 됐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전기가 된다. 그때까지 이기적 동기가 애국적 동기에 의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부흥운동을 통해 비로소 기독교 진리를 접하고 참 기독교자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다. 따라서 이 부흥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교회가 토착교회로 자리 잡음하는 데 기여한바 컸다.

이 운동의 발원은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이 있다. 먼저 원인을 살펴보면, 19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함경남도 원산 지방에서 선교하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는 장로교, 침례교 선교사와 일부 한국교인도 참여하는 연합기도회로 확대되어 매일 밤 집회가 일주간 계속됐다. 그런데 이 기도회에 남감리교회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강원도에서 수년 선교활동을 했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한

하디(R.A.Hardie)가 자기의 무력을 깨닫고 통회 자복의 기도를 드린 것이 부흥운동의 불씨가 됐다.

하디는 본래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YMCA 소속 선교사로 내한하여 일하다 1898년에 남감리교회에 가담, 강원도에서 사역했다. 그의 개척 선교는 별 진척이 없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 (남감리)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터(地境堡) 지역에서 애써 일했으나, 사업에 실패했다. 이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고, 나는 일을 더할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했다.

그는 선교사들 앞에서 솔직히 자기의 실패와 그 원인을 고백했으며, 기도 중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 오심을 깨닫게 됐다. 그때 그 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디의 적나라한 죄의 고백과 성령의 충만한 은사 체험을 목도하고, 그들도 성령의 은사 체험을 통해 부흥의 불길이 서서히 붙었다.

이런 사경회가 이듬해인 1904년에도 원산에서 다시 시작되자.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은사 체험은 원산을 중심으로 한정된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고 넓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산 지방 부흥 소식을 들은 평양의 선교사들이 1906년 여름, 하디를 강사로 초빙하여 장·감 선교사 연합으로 일주간 기도회로 모여 성령체험을 시도했다. 그 기도회 후에 북장로교회 연합총회가 서울에서 모였는데 이때 뉴욕의 존슨(H.A.Johnson) 목사가 한국 방문 중에 인도와 웨일즈(Wales) 지방에 일고 있는 부흥의 소식을 전했다.

1907년 부흥운동의 직접 동기는 1907년 정월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렸던 평안남도 남자도사경회(남자(男子)都査經會)에서 성령의 불길이 떨어짐으로 비롯됐다. 이 사경회는 정월 6일부터 시작되어 열흘

동안 계속됐는데, 주로 성경공부를 했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로 모였다. 그런데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된 동기 중 하나는 이 교회가 새벽기도회를 계속한 일이다.

그 전해 가을부터 시작된 새벽기도회는 김선주 장로가 인도했다. 김 장로는 동료 장로 박치복과 함께 국가의 어려움을 염려하며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 기도했다. 이에 여러 교인이 호응하여 함께 기도했는데, 300~500명 교인이 모이기 시작했다. 김 장로는 교회의 공식 허가 없이 매일 수백의 교인이 모이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당회에 정식 허가를 얻어 공식적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교회 새벽기도회는 1906년 가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김선주 장로에 의해 시작됐다.

이렇게 새벽기도회로 준비된 사경회는 몇 날이 못 돼 성령의 불길이 떨어졌는데 그 때가 14일 저녁 집회였다. 북장로교회 선교사 블레어(W.N.Blair)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들이라."고 설교한 후,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 신비한 힘이 넘쳐흐름을 느꼈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함을 피부로 느꼈다.

이 날 밤에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 영국의 저명한 신문 '더 타임스'(The Times)가 영국의 세실(Sir William Cecil) 경이 직접 목도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자 비상한 힘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온 회중을 사로잡은 듯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애절한 침통(沈痛)에 사로잡혔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죄가 자기생활에 정죄 판결을 선언하여 주는 느낌을 갖게 했다. 이 때 선교사들은 사람들의 엄청난 죄의 고백을 듣고 놀랐고, 또 이러한 기사를 생가게 한 능력이 강림함을 보고 떨었다. 그들이 평소 애 사랑하던 한국인 제자들의 참회의 고통에 동정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음 날 선교사들은 이 사태가 지나가고 거룩한 위로의 교훈으로 지난밤의 상처를 싸매게 되기를 희망했으나 또 다시 이와 동일한 통회와, 죄의 자백이 되풀이됐으며, 이러한 사태는 여러 날 더 계속됐다." 부흥의 불길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계속>

지도자를 책망하신 예수님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마 6:1-18, & 23:2-36).

당시의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인들과는 어느 면으로도 맞을 수가 없었다. 백성들은 민족의 영웅인 모세보다 더 위대한 메시야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체 왕국을 세우는 꿈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따랐으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눈앞에 있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일 계획만을 일삼고 있으니 백 번 책망받아 마땅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남들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꼴을 더 이상 보고 둘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남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며 "남들로부터 대접과 존경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들도 남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셨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또는 헌금을 할 때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크게 광고를 하며 했다.

그 이유는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허식과 잘못된 종교의식을 책망하셨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거룩한 성전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유대인들은 일 년에 몇 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

마땅히 제물도 준비해야 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두 마리, 그리고 형편에 따라 양이나 소를 바쳤다. 또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 마당에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장소도 만들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최고였다 했다. 그래서 제물이 될 동물을 검사하는 검열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뇌물을 안 주면 불합격시키고 반대로 뒷 돈을 주면 병신된 짐승도 합격시켜 주었다. 성

경은 지적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부실한 동물들을 하나 남게 드린다고 했으니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 또 있다.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어 자기 지방에서 쓰는 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을 높여 부정을 저질렀다.

어느날,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부패한 성전 분위기를 보시고 분노하사 채찍을 들고 뜰에 있는 짐승들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꾸는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탄하셨다.

역사를 보면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큰 흥역을 겪는다. 중세 유럽 암흑기도 기독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며 차리정부를 뒤집어 엎고 교회건물을 공산당의 사무실로 쓰게 하기까지 교계는 너무도 타락했다. 오늘날 여러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하다 못해 동성 결혼까지 인정하는 일에 교계가 앞장서고 있는 일은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오늘날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소유의 전부를 가난하고 병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M3® 세트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제품소개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공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노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와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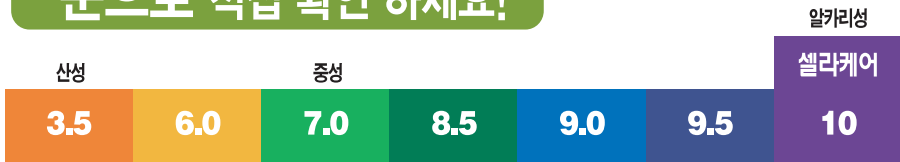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E는 베타,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코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코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 | | | | | | | |
|----------------|--------------|--------------------|--------------|----------------------|--------------|---------------|--------------|
| 본사(LA) | 213.435.9600 | 뉴서울호텔 (팔달) | 213.386.5310 | 플러튼 홈쇼핑 | 714.496.7887 | 토렌스 | 213.268.0844 |
| 시온약국 | 213.344.9730 | LA별몬 마틴약국 | 213.382.9718 | 에나하임 | 714.469.5809 | 뉴욕,뉴저지 | 201.983.8333 |
| LA 아드모아약국 | 213.385.2135 | LA별몬 갤러리아마켓약국 | 213.388.4100 |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 909.595.4003 | 씨애틀(건강마을) | 206.229.5466 |
| LA 한국마켓약국 | 323.464.3925 | 가주건강종합백화점 | 213.388.0091 | 얼바인 | 949.330.9009 | 하와이(생약촌) | 808.947.8086 |
| LA 베스트약국 | 213.385.9926 |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 213.380.5103 |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 909.594.6370 |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 847.699.1511 |
|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 213.384.6323 |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 818.637.7708 | 랜초쿠카몽가 | 909.987.9500 |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 224.406.0337 |
| 에스약국 | 323.733.7788 | 밸리 소망 약국 | 818.832.2757 |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 949.251.0193 |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 770.457.1717 |
|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 323.733.7200 | 오렌지카운티 | 213.247.2244 |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 562.402.8859 | 텍사스 (로얄백화점) | 972.620.2900 |
| LA 다운타운 | 213.798.3333 |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 714.228.9212 |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 562.402.6972 | 플로리다/NC/SC | 770.457.1717 |
|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 213.739.3030 |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 714.636.2588 |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 562.402.6970 | 캐나다 | 604.872.1669 |
| LA 6가 버질약국 | 213.384.1200 |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 714.730.2707 |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 626.839.2868 | 세크라멘토/아리조나 | 602.332.6492 |
| LA내처영양센터 | 213.739.8874 |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 714.690.0120 | 로렌하이츠 | 626.912.5727 | | |
| 다운타운 산페드로 | 213.765.9677 |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 714.670.7979 |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 310.619.7758 | | |

성경읽기 운동 통해 세계 크리스천 살린다

기독교일보 초대석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본질에서 떠난 것이다. 본질 이탈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닌, 감정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심으로 한 기복 신앙으로 흐르는 것이다. 이같은 시대에 90일만에 성경을 술술 읽을 수 있는 가이드북인 '통근통독'을 저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장애를 느끼는 많은 교인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기독교의 본질 회복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1661 Raymond Ave. #265, Anaheim) 대표 주해홍 목사. 25년간 거주 조세형평국 감사관으로 일하고 은퇴한 뒤 90일 성경일독본부 상임대표,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 교수, ANCON누리교회 사역목사 등으로 섬기고 있는 그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인도, 중국, 러시아, 터키, 멕시코 등을 넘나들며 성경통독 사역을 통해 지친 평신도들과 선교사들의 영적 회복을 돕고 있다. 그는 "말씀이 삶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로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 목사와 일문일답.

즐거워 따라 읽는 가이드북 '통근통독' 저술 성경 통독에 어려움 겪는 신자들에 큰 도움 한국 미국 선교지 돌며 강의 영적 회복 선사

“땀과 눈물과 기도의 결정체인 저서 '통근통독'을 소개해 달라.

“우리 사역원의 이름으로 2010년에 이 책을 출간했다. 1년 반 동안 약 7,000권이 팔렸다. 그후 두란노에서 2012년 1월 재출간한 뒤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량이 삼시간에 보급됐다. 책에는 50시간에 신구약 전체를 들을 수 있는 MP3 파일을 담은 CD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6월에는 읽기 쉽게 '통근통독이 제시하는 순서 대로 본문을 재배열한 '통근통독 성경'(두란노)도 편집해서 내게 되었다. 이밖에 '통근통독 인도사 지침서'도 나와 있다.”

“어떻게 책을 쓰게 되었나.
“처음부터 책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경통독 클래스를 인도하면서 자체 교재가 필요해 계속 만들다 보니 결국 책이 된 것이다. 준비에 거의 18년이 걸린 것 같다. 직접 가르쳐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친 책이다. 철저한 임상실험을 거쳤다는 것이 장점이다. 성경 일독을 결심했지만 바쁜 생활로 중단했거나 많이 읽어도 전체 흐름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인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통근통독의 특징은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맥을 잡으면서 읽도록 독자들을 인도한다. 종합론적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별된 삶이라는 3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고 통독하도록

돕는다. 하나님 나라라는 흐름을 이해하면서 통독적으로 성경을 읽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는 의도에서다. 방법론적으로는 '즐거워 따라 읽기'와 '메시지 잡고 읽기' 두 가지를 병행한다.”

“즐거워 따라 읽는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기존의 배열 순서에 따라 읽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고 만다. 통근통독은 스토리라인, 즉 즐거워 따라가도록 성경의 순서를 재구성하고 시대적 배경 파악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다윗 이야기의 경우 사무엘과 그 내용과 관련 있는 역대상, 여러 상황에서 쓴 그의 시편들을 묶어서 읽는 식이다. 분열왕국시대에는 각 선지자들이 활약하던 시대의 배경을 열왕기 등 역사서와 함께 읽도록 배려했다.”

“혹시 다른 언어로도 책이 발간되었는지.
“영어와 스페니시, 중국어 번역을 끝내고 지금 책을 제작하는 단계다. 미얀마어, 터키어 등도 번역을 하는 과정에 있다. 전세계 교회들을 성경신학적 관점 위에 세우는 일에 이 책이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소개한다면.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의 프로젝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부설기관 '90일 성경일독본부'를 설립했다. 주요 사역은 통근통독 90일 성경일독학교, 통근통독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대표 주해홍 목사는 "종합론적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구별된 삶이라는 3가지 관점을 갖고 즐거워 따라 통독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삶이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강사학교,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한 통독포럼, 저자 직강 특별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종 교재 및 자료를 보급하는 한편 통독전문 사역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다.”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낼 것 같은데.
“그렇다. 교회와 단체의 초청을 받아 세미나를 인도하는 것 외에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16주 과정의 전문강사 학교를 열고 있다. LA는 내년 2월 LA와 애너하임에서 열린다. 다음 달에는 서울 두란노서원에서 목회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3일 집중강의를 한다. 11월에는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방문해 선교사 12가정을 모아놓고 강의할 예정이다. 성경통독이 필수수목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도 10월 집중강의를 하고 있다.”

“통근통독 세미나 참석자 간증을 소개한다면.
“너무 많지만 일부만 소개한다면 '통근통독 강의는 성경 일독의 길에 아스팔트를 깔아 차가 잘 달리도록 하는 것 같았다' '포기하지 않고 성경 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과 입에서 원망과 다툼이 사라지고 말씀과 찬송이 흘러나온다' '남편과의 관계가 신혼 때처럼 되니 남편이 행복해한다' '삶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이 해석되지 않아 길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 등이다. 또 '기도 없이 순종 없고 순종 없이 하나님나라 성취 없음을 배웠으니 기도와 순종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황을 초월

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현재의 고통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온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느껴진다'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역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인들도 있지만,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면서 알게 된 미국인 친구들이 많이 도와 준다.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은 주 및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기부한 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개개인이 성경에 뿌리박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도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무조건 성경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 받는 것이 성경 읽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성경읽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오는 26일(토) 오전 10시 성경읽기 운동 발대식을 갖고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신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에 주력하겠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한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문의: 714-713-8833
김장섭 전문위원



주해홍 목사를 강사로 한 교회에서 열린 통근통독 성경 세미나의 모습.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643-0301 / Fax: (323) 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리리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 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 736-5115

“교회 성장 막는 6가지 이유”

툼 레이너 박사 ... 교제하기 바빠 전도할 시간 없어

[1면으로부터 계속] 1.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문화적 기독교인들의 증가

레이너 박사는 “문화적 기독교라는 말은 모순적”이라면서 “문화적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이전에 출석했던 이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이익이 없으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서 “이전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교회에 덜 출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2. 헌신적 기독교인들도 교회에 덜 출석한다

레이너 박사는 “가장 헌신된 기독교인들도 교회에 덜 출석하는데, 한 달에 4번 주일예배에 출석하다 3번만 출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앞으로 출석이 급격히 줄어들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좋지 않은 현상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3. 실용주의에 대한 지나친 반감

레이너 박사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만연한 실용주의로 인해 사역에 방해받을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장되게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귀까지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 실용적인 방법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4. 교회 내 성도들과 교제하기 바빠 전도할 시간도 없는 성도들

레이너 박사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 성도들과의 교제에 너무 바빠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과 비기독교인들과 교제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훈련하



툼 레이너 박사

는데 쓸 시간이 거의 없다”면서 “교회 내 성도들과의 미팅과 교제, 활동이 전도 등의 실제 사역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의 증가

레이너 박사는 “교회 내 성도들이 불화하여 분열될 경우,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선교)과 지상명령(Great Commandment-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초점을 두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6. 일부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특권 의식

레이너 박사는 “교회에서 ‘나’를 우선시하고 교회를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여길 경우, 교회의 성도들은 내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레이너 박사는 “교회가 이 여섯 가지 중 한 가지의 문제만 가지고 있어도 대위임령의 완수를 위해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을 가지게 된다”면서, 그 여파로 교회 성장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며 “하지만 많은 교회 내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인가”

하베스트교회 그렉 로리 목사...수만명 운집한 집회서 전도

[1면으로부터 계속] 둘째날 밤 로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는 파스칼의 명언을 인용해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빈 자리가 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일종의 구멍과 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외롭다”면서 “사람들이 늦은 밤에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세 단어는 ‘포로노’ ‘외로움’ ‘자살’”이라고 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것은 양심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범죄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로리 목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허, 외로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로리 목사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 놓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면서 “그 벽을 우리는 ‘죄’라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벽은 너무 크고 높아서 넘어갈 수 없다”면서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2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완벽하게 죽으셨고, 더 나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순간 바로 우리와 함께”라며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했다.

로리 목사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성경에서는 죄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 버리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

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덧붙였다.

로리 목사는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간 뒤 잘못된 결정을 한 가지 내릴 수 있다”며 “돌아설 수 없는 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1-32절을 인용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이다.

로리 목사는 “성령을 거역하는 신성 모독죄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삶의 변화를 원치 않아서,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했다.

그는 “성령은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 중 한 위격”이라면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간청하게 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용서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그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면서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라고 말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시인해야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로리 목사는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영접할 것을 요청했고, 수천 명이 이에 응해 무대 앞으로 나왔다.

이혜리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밀종교 / 토요일-17와 버먼트 크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백업하며, 이만가정을 치로하며, 신교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장태원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령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라, 소망중에 기뻐하라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910-95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새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후 4시 엘리자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00 목요일(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us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열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9: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 (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7-1700 / T. (313)500-4737 / olympic-church.org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령 (정부 배네티프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콜라세(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549-9191 / F. (818)549-9199 / choon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행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평화회 오후 8: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영아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F.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리침례예배 오후 12:5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양성평화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청년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오전 11시(본성전), 1부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9: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EM)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7:3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15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이침례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EM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아/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금요일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목요일예배 - 저녁 7:45, 구약모임 매월 1회,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처라카운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월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일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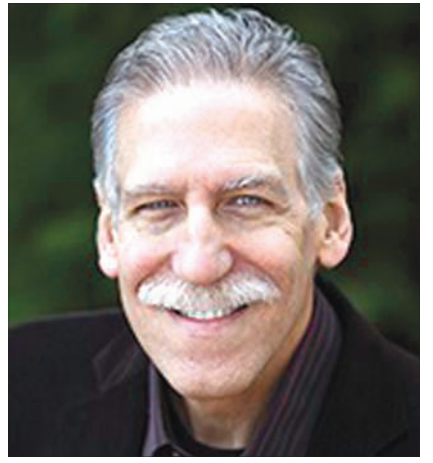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테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힐로우쉽홀)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오후12:00(본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성중립적 대명사?”

마이클 브라운 박사 ... 사회의 도덕적 무감각 경고



마이클 브라운 박사
@http://askdrbrown.org

크리스천포스트의 객원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지난 8월 31일 “성중립적 인칭대명사? 사회가 미쳐가고 있다”(Zis Is What I Call Social Madness)는 글을 게재했다.

브라운 박사는 “테네시대가 ‘ze’, ‘hir’, ‘zir’, ‘xe’, ‘xem’, ‘xyr’와 같은 성중립적 인칭대명사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면서 “사회가 미쳐가고 있는 최근의 사례”라고 말했다.

브라운 박사는 ‘사회가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로 △미국 전역에서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 압박 △자신이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말하는 ‘생물학적 남성’ △자신의 성을 무려 50가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이것도 부족하면 공란에 자신의 성별에 대해 직접 기록할 수 있다) △아이의 성별을 놓고 러시아인 룰렛 게임(회전식 연발 권총의 여러 개의 약실 중 하나에만 총알을 넣고 그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린 후, 참가자들이 각각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하는 사람들 △인간은 2개의 성(性)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나를 트랜더(견인자)라고 불러 달라”고 하는 10대들 △유튜브에 자신을 “다성애자(pansexual), 양성탈피자(genderqueer, 남녀 이분법에서 탈피한 정체성 추구), 트랜스레즈비언(transdyke)”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성별란을 두고 싸우고, 아이들을 ‘소녀’이나 ‘소년’이라는 말보다 ‘퍼플 펙귄(purple penguins)’이라 부르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학교 등을 꼽았다.

브라운 박사는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성 구별을 부인하면 할수록 인간의 가장 기본적·기초적인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도덕적·사회적 무감각에 깊이 빠져들고 있

는 우리는 언제쯤 여기에서 깨어나게 될까?”라고 했다.

그는 “성소수자들의 투쟁은 소수가 세상을 뒤집어엎어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한 명의 청각장애 학생 때문에 학교 전체가 수화를 사용해야 하는가? 한 명의 시각장애 학생 때문에 학교 전체가 점자를 사용해야 하는가? 왜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성중립적 대명사를 사용할 것을 대학이 요구하는가?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의 구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소년은 소녀가 아니고, 소녀는 소년이 아니다. he’가 ‘ze’가 될 수도, she’가 ‘zir’가 될 수 없다”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은 폐하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칭송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박사는 마지막으로 “세계가 미쳐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도 미쳐가는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세계 난민문제 해결 리더십 절실”

안젤리나 졸리 ... ‘더타임즈’ 지 기고글

터키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된 시리아 3살 꼬마 난민 쿠르디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인도주의적인 영화배우로 잘 알려진 안젤리나 졸리가 영국 ‘더 타임즈’지에 7일 관련 기고문을 실었다.

안젤리나 졸리는 먼저 “역사 가운데 세계 난민들의 위기를 초래한 환경과 그 원인을 해결해 줄 리더십에 대해 이만큼 절실하게 요구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유럽을 향하고 있는 난민들의 행렬을 보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쿠르디를 기억하듯 “시리아의 분쟁이 고통 받는 이들을 만들어 내 그 고통은 시리아 전체에 퍼졌고, 이제 유럽 해안까지 닿았다”고 언급하면서 “시리아인들이 폭탄 및 화학 무기, 강간, 학살 등으로부터 도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조국은 킬링필드(Killing Fields)가 됐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시리아인들이 자국에 정치·경제적 자유를 부르짖을 때 경제사야 우리가 그들을 인식했다고 말하고, “가족이 집에서 포탄을 맞고 아이들이 건물에 깔린 모습과 극단주의자들에게 점령된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했다”면서 “유럽을 비롯해 어디서든지 시리아인들은 동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해 많은 유명인들이 (난민들에 대한) 도덕적 태도를 취하는 것과,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봉사 및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난민들의 소식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뉴스 토론 앞에 등장했다”면서 “난민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면서 시리아 분쟁뿐 아니라 세계 난민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바꿀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젤리나 졸리는 상황 타계를 위한 몇 가지를 언급했다. 그녀는 먼저 이들을 돕기 위한 책임이 지리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아닌, 종교와 문화 인종을 초월해 범세계적인 인권과 가치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그녀는 난민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정치·사회·경제·치안 등의 위기가 찾아올 것임을 인식시키고, 각국 정부가 자신의 국가에서 예상되는 결과의 해결과 난민들과의 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리아 인접국들이 수 년 동안 많은 책임을 지고 모범적인 관용을 베풀었다”고 평가한 그녀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 책임과 자국 국민들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녀도 빈곤을 벗어나려는 경제 이민자들과 생존의 위협을 느껴 탈출하려는 난민이 구분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비극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이들의 인권과 존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법에도 그 권리가 명시되어 있듯 난민은 박해 및 죽음으로부터 당장 벗어나야 하는 이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우 및 감시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안젤리나 졸리는 “난민들을 우리가 환영해도 시리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문제는 계속 확산될 것”이라 말하고, “분쟁을 끝낼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UN안보리 등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그녀는 시리아 분쟁이 국제 거버넌스 위기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난민이 아닌 정부가 장기 해결책을 모색해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러한 난민 사태를 맞이한 것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을 비롯해 미국까지 인류애의 깊이를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난민에 대한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기를 바라면서 기고글을 마쳤다.

한편, 안젤리나 졸리는 2001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캄보디아에서 ‘툼 레이다’를 촬영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전 세계 난민 캠프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동성애 소설 <재미난 집> 거부”

듀크대 학생들...기독교 신앙에 위배돼

듀크대학교의 신입생들이 “신입생을 위한 여름 서적(freshman summer reading book)”으로 선정된 한 소설책을 읽는 것을 거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신입생들은 외설적인 동성애가 담긴 이 책이 기독교 신앙과 도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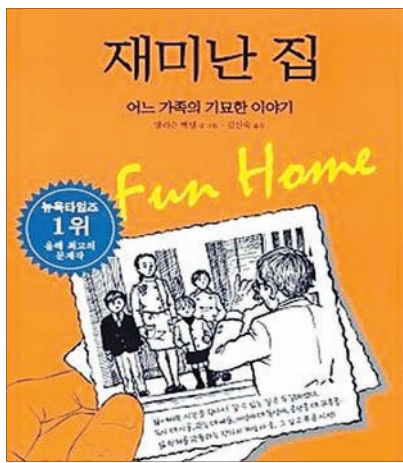
듀크대는 지난 4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앨리슨 벡델(Alison Bechdel)의 자서전적 소설 <재미난 집: 어느 가족의 기묘한 이야기(Fun Home: A Family Tragicomic)>를 권장 서적 중 한 권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책은 여성성이 다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자신은 남성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레즈비언이 된 작가의 자전적 만화 소설이다.

듀크대의 ‘여름 책 프로그램’은 필수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대학생활에 앞서 신입생들이 소그룹을 통해 선정된 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여름 기간 동안 모든 신입생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진다.

일부 듀크대 신입생들이 문제 삼은 것은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데다 음란 수위도 매우 높기 때문. 책에서는 두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만화로 두 차례 보여주며,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과 여러 여성들이 오럴 섹스를 하는 장면도 담고 있다.

이에 일부 듀크대 신입생들은 이 수업의 공식 페이스북에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이들 학생들 중에 한 명인 브라이언 그라스(Brian Grasso)는 이 책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면서 워싱턴포스트에 자신과 다른 신입생들이 이 책을 읽기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기고했다.

그라스는 “나는 기독교인이며, 나의



한국어로도 출판된 문제의 책 <재미난 집>

신앙과 정체성이 듀크대와 같은 진보적인 대학에서 도전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문제의 책을 읽고 검토해 본 결과, 나는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외설적인 것을 멀리하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신입생 제프리 우벤호스트(Jeffrey Wubbenhorst)도 듀크 크로니클(Duke Chronicle)에 “이 책이 만화가 아니었다면 읽었을 수도 있다”면서 “만화로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이 너무 외설적이어서 내 양심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듀크대 측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 책을 읽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권장이며,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이 학생들의 성적이나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며 “전 세계에서 오는 1,750명의 신입생들 중 누구의 생각에도 도전적이지 않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동성애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의 책을 기독교 신앙과 윤리에 위배된다고 읽는 것을 거부한 듀크대 학생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IS, 기독교인들에게 11계명 발표”

교회 설립·기도·예배 모두 금지 위반 시 처형 위협

이슬람국가(IS)가 점거하고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 마을 주민들에게 “11가지 계명”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수종교 박해 감시단체인 왓시리아인권모니터의 자필 디아르바케틀리 디렉터는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설파에 이같이 밝히고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국제적 관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시리아 서북부 알카리야 타인 마을 주민들은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인 지즈야를 내야할 뿐 아니라 IS 대장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직접 정했다는 이 11가지 계명에 복종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 11가지 계명은 교회를 설립하지 말 것, 십자가를 걸지 말 것, 무슬림에게 기독교인의 기도와 예배 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 것, 스파이를 감춰 주지 말 것, 이슬람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 무기를 소지하지 말 것,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나 포도주를 팔지 말 것, 그리고 옷차림을 정숙하게 할 것 등이다.

손현정 기자

왓시리아계 미국인 인권운동가인 나렌 안웨야는 이런 계명들은 “IS가 사실상 점거 지역 내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내셔널비지니스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 전체가 완전히 IS에 점령되었고 이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모술에서, 니스베에서, 카부르에서, 하사카에서도 쫓겨났고 이제는 알카리야타인에서도 쫓겨났으며 고대 왓시리아의 영토였던 더 많은 곳들이 이제 더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그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아온 땅을 빼앗았고, 우리의 소녀들과 교회들도 앗아갔으며, 이제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고 호소했다.

ICC는 현재 알카리야타인에 250여 명 가량의 시리아정교회 교인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IS는 앞서 점거한 마을들에서도 비슷한 규율을 정해서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해 왔다.

“독일 망명 무슬림들”

세례받고 대거 기독교로 개종

독일 망명을 원하는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대거 개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망명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망명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종자들은 세례를 받았고, IS(이슬람 국가)와 같은 과격 이슬람 단체들의 압박이 있는 고국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를린의 한 교회는 성도가 150명에서 600명으로 4배나 급증했는데, 새 신자 대부분이 무슬림 개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는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독일에서 이민자나 난민으로 지내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종의 배후 동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밝혔다.

고트프리트 마르텐스(Gottfried Martens) 목사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임을 믿는다고 했다. 고트프리트 목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망명에 대한 희망 등으로 교회로 오는 이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는 그들을 기꺼이 초대하고 있다. 이곳에 오는 자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은 10%에 불과하다고 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독일 망명을 희망하는 이들은 올해만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난민들은 시리아,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과격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서 온 이들과다.

| | | |
|--|---|---|
| O.C. /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 |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목) 5:00am (더울남)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
|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일예배 오전 6:00 설가주예배 : 매일 4배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벨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 |
|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 |
|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일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남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038 / us8291@gmail.com |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매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 |
|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심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아예배(GLMC) 주일오후 12:30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RHEM.COM | |
|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현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일 새벽 찬양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 |
|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모임: 7:20 PM(성경 66권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새로운 본질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쁨이 되시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gmail.com |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원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 |
| 1부예배 오전 9:00 P-H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토요일예배(남부) 오전 6: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엘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 |
|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엘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엘바인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 309-7551 Pastoryckim@yahoo.com | |
| 주일 인터넷 생방송들이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중,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5(Worship Center) T. (714) 788-3677 / www.yehind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 |
|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 주일 오전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 |
| 1부예배 오전 09: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토,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락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 |
| 주일 삼경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 |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 | | |
|--|--|--|
|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유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인과도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부흥한국 25차 전도 콘퍼런스

2000명 이상 참석... 교회 부흥의 마중물 되기를 기도



포도원교회 행사 모습. ©부흥한국 제공

부흥한국(대표 박성준 목사) 주최 제25차 전도 콘퍼런스가 1일 부산 화명동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에서 부산·경남 지역 교회 전도팀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양적 성장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에 입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응하기 위해 전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올 가을 5명 이상씩 전도하기로 작정하며 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참석한 교회들 간에도 동역하여 부산·경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을 다 잡겠다고 다짐했다.

인사를 전한 김문훈 목사는 “저도 여러 집회에 강사로 초청받아 가고 있지만, 부흥한국 전도 콘퍼런스는

현존하는 전도집회 중 내용과 인원 수, 만족도에서 최고”라며 “집회 시 모든 참여자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와 함께 교회 부흥을 이룬 강사들의 흥미와 감동이 있는 강의를 통해 큰 도전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백동주 목사(목포사랑의교회)가 ‘복음의 능력, 증언의 능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가을맞이 -비신자 전도 폭발의 실전과 작정’,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가 ‘내가 먼저 -행복전도자 교회와 목회자 사랑’, 그리고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는 전도자’를 강의했다.

박성준 목사는 “참석한 교회마다 내적으로 거룩해지고 건강하게 부

흥하며, 외적으로 성장이 있어 실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며 “하늘 비전교회(담임 오영택 목사)의 경우, 지난 봄 23차 콘퍼런스에 교인들 150명과 함께 참석해 전도의 확실한 동기부여를 받고, 지금까지 비신자 591명(장년)을 등록시켰다고 한다”고 보고했다.

박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영향력이자 희망이 될 수 있다”며 “교회마다 만연돼 있는 회피주의와 부정주의, 패배주의를 벗어 버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전도 콘퍼런스는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 남산교회와 17일 조치원장로교회 일정을 남겨 놓고 있다.

김진영 기자

“제10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강영선·소강석 목사 와 양인평 장로 수상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들과 주최측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구현하는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김대성 목사, 이하 한복총)이 제10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시상식을 4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개최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이래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이 상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 기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시상해 왔다. 올해 수상자로는 대외부문 강영선 목사(일산순복음영산교회 담임), 대내부문 소강석 목사(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대표대회장, 세이덴교회 담임), 평신도부문 양인평 장로(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 변호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강영선 목사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기존의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를 통합,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기여한 점이 선정에 반영됐다. 소강석

목사는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대표대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며 경기도 내의 기독교 연합단체를 주도적으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로 통합시켰기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인평 장로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을 2008년도에 설립해 교계·교회·교단 내의 분쟁과 갈등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등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한국교회연합과일치상은 대외부문 김준근 목사, 길지연 목사, 장희열 목사, 방지일 목사, 최낙중 목사, 손인용 목사, 전병규 목사, 권태진 목사, 박춘화 목사, 대내부문 피종진 목사, 노태철 목사, 최성규 목사, 손학봉 목사, 노희석 목사, 안준배 목사, 김용완 목사, 오범열 목사, 평신도부문 김영진 장로, 전용태 장로, 황우여 장로, 노승숙 장로, 이재천 장로, 장현일 장로, 김명규 장로 등이 수상했다.

김은애 기자

“신학자들이 바라본 ‘성령의 은사’는?”

기독교학술원, “한국교회 성령의 은사와 열매” 주제로 제47회 월례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4일 오전 반도중앙교회에서 “한국교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제로 제47회 월례회 대회 및 발표회를 가졌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사회적 봉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개회사를 전했다. 그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주요 목적인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성화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회의 대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다”면서 “은사는 개인의 영력의 자량이나 교회의 양적 성공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화, 교회의 성화, 사회적 성화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은사를 가진 자는 항상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는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속에 누룩처럼 스며들어가며 복음을 실천해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들”이라 했다.

오성중 박사(전 칼빈신대원장)는 “성령 은사의 종류와 목적”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박사는 역시 김영한 박사처럼 “성령의 은사들은 개인 신자와 특히 교회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라 말하고, “이 목적으로 주시는 은사들 중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사도시대와 신약성경 완

성 이후의 시대를 불문하고 그러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각종 사역자들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은사들은 간절히 사모할 대상”(고전 14:1)이라 말하고, 그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며’(고전14:12) 그리고 계속해 ‘불일듯하게 하도록’(딤후 4:14) 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지막 발표자인 오영석 박사(전 한신대 총장)는 “사회적인 영성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마하트마 간디와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김재준 목사, 옥한흠 목사, 하용조 목사 등 사회적 영성을 실현했던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행사 전 예배 시간에는 임태수 박사(호서대 명예교수)가 설교했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변실금’ 심각”

‘통일한국과 동성애’ 주제로 세미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한 책, 교회는 불법집단이 되고 학교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인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배워야만 합니다.”

기독교미래연구원(CFI, 원장 최병규 박사)·통일한국포럼·에스더기도운동이 공동주최하고 기독교미래연구원이 주관한 ‘CFI 제3차 세미나’가 ‘통일한국과 동성애’를 주제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용희 교수(가천대,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최병규 박사의 발제를 통해, 동성애의 문제점을 확인하며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됐다.

이용희 교수는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에이즈(후천성 면역력 결핍증, AIDS)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질

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5배가 증가했다”며 “특히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8배나 증가했고, 2013년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수는 1만 명을 넘어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가 됐다”고 경고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변실금’ 질환의 실상이 공개됐다.

조영길 변호사는 ‘김조광수 동성혼인 합법화 요구 소송의 법적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 주장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최병규 박사는 “우리나라는 국가 사회의 기본 단위로 ‘혼인’으로 구성되는 가족 개념에 있어서 혼란에 봉착해 있다”며 “동성애 허용은 가정이라는 개념에 혼란을 주며, 자녀들의 공교육 등 우리 사회 제반 영역에 커다란 피해를 몰고 올 것”이라고 했다. 이동윤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천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천 홈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가을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9월 18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나눔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눔을 체험하고, 나눔을 배울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비영리단체 박람회

Non-Profit Organization Fair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수익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커뮤니티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을 초청해 그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행사인 Non-Profit Organization Fair를 개최합니다. "Love of Sharing"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비영리단체들을 이해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치고 함께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행복한 웃음과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일 시 : 2015년 9월 19일(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 특별 강연 및 공연
오후 12시 ~ 오후 3시 : 비영리단체 박람회
- ♥ 장 소 : Good Samaritan Hospital
Moseley-Salvatori Conference Center
637 S. Lucas Avenue, Los Angeles, CA 90017
- ♥ 문 의 : (213) 593-4885
- ♥ 주 최 : 오픈청지기재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 특별 강연

- Young Kim 주 하원의원
- 최홍주 목사

♥ 공연

- God's Image



- 참가단체 :
- America Wheat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밀알선교단)
 - Asian American Job Training Center (재미한인직업교육센터)
 - Circle of Friends in Love
 - Compassion
 - Good Neighbors
 -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한미가정상담소)
 - Han-Schneider Int'l Children's Foundation
 - Home on the Green Pastures (푸른 초장의 집)
 - 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 (비전시각장애인센터)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한인가정상담소)
 -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한미특수교육센터)
 - Korean Community Services (코리아안복지센터)
 - Korean Resource Center (민족학교)
 -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KYCC)
 - Love In Music
 - Mental Health Family Mission (정신건강가족미션)
 -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 (의의나무 오병이어)
 -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shalom장애인선교회)
 - Somang Society (소망소사이어티)
 - The Well Mission (울타리선교회)

- ♥ 후 원 : openbank | 오랜 역사와 전통의 자신감- Good Samaritan Hospital
- ♥ 협 찬 : 북창동순두부, CGV, R&M Pacific Rim, Zion Market, Wi Spa, Key Company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와 간단한 점심 그리고 다양한 경품도 함께 준비됩니다. 오전 행사에 참여하시면 더 많은 경품의 기회를 드립니다.

●달라이라마와 라마교(2)

밀교 철학, 율법폐기론적 사랑 추구로 사회 타락 우려

이슬람과 유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를 연구해 온 선교신학자 이동주 소장의, '라마교와 그 수장 달라이라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연재하여 라마교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문화에 들어맞는 달라이라마
- 2. 밀교 철학, 율법폐기론적 사랑 추구로 사회 타락 우려
- 3. 달라이라마, 무당 깊이 신뢰하고 귀신에 얽매어 있어

2. 탄트라교의 특징

1) 탄트라교의 주술과 샷티신앙
탄트라교는 본래 인도의 고유 종교와 대승불교가 혼합된 것이었고, 티베트로 건너와 사며니즘과 잘 융합되었다.

탄트라 불교신앙은 인도 불교에 뜻이 있던 티송테첼왕이 나란다 사원의 대학장인 산타 라크시타(Santa-laksita, 시와초라고도 한다, 725-783)를 티베트로 초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티베트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산타 라크시타는 탄트라교의 '위대한 스승'인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를 초청했다. 파드마삼바바의 주술로 악령을 쫓아내고 반대세력을 압제하기 위해서였다.

파드마삼바바는 연화생(蓮華生)이라고도 한다. 그는 탄트라교의 중심지인 벵골에서 수학하고, 두 사람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력으로 모든 정령들과 악마를 항복시키고 티베트의 사며니즘이 수용할 수 있는 많은 기적을 행하여 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 티베트 사며니즘과 혼합된 파드마삼바바가 들어온 탄트라 불교가 라마교이다.

티베트에서는 이 불교와 혼합된 본교를 백본교라 하고, 순수 불교를 흑본교라 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순수 불교를 현교(顯敎), 주술적 불교를 밀교(Tantric Buddhism)라 한다. 밀교는 순밀인 우도(右道) 밀교 금강승(Vajrayana)과 성애적 잠밀인 좌도(左道)밀교로 구분된다. 밀교는 추상적 범신론적不二나 열반을 추구하는 대신, 유신론 종교 형태를 띠고 샷티(Consert)신앙, 기복신앙, 신비주의, 주술신앙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우도밀교(daksinacara-vajrayana)는 금강정경에 따라 남성원리와 여성원리를 형이상학적으로 조화시켰다.

그러나 좌도밀교(vamacara-vajrayana)는 시륜경(時輪經, Kalacakra)에 따라 두 원리를 정신적으

로 뿐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밀교의 성애신앙(샷티신앙)은 힌두교의 샷티신앙이 티베트 불교로 건너가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에 우주적인 힘이 있다고 믿으면서, 생식 기능에서 그 힘을 찾으려는 것이다. 우주적인 샷티와 결합함으로써 성불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라즈니쉬 아쉬람에서 시행되고 있는 힌두교의 군달리니 요가에서도 발견된다.

샷티신앙 내지 성애신앙에 관하여 엘리아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개 모든 나신(裸身)의 여인은 프라크리티의 화신이다. ... 만일 여인의 나신을 마주하고, 우주적 신비의 계시 앞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강력한 정서를 갖지 못한다면, 거기서 의식(儀式)이란 없고 업보적인 성적 결과를 동반하는 오직 속된 행위만 있을 뿐이다. 의식의 두 번째 단계는 여자 프라크리티를 샷티



이동주 소장
선교신학연구소

이 사원에서 불상들, 신들, 마귀들을 숭배하고, 불교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였다.

2)탄트라교의 수법
삼매에 도달하려는 밀교적 수법에는 구밀(口密: Mantra, Dharani), 의밀(意密: Mandala), 신밀(身密: Mudra)의 세 가지가 있다. 구밀은 신에게 바치는 소리를 통해서, 의밀은 배열한 부처 그림을 통해서, 신밀은 몸가짐을 통해 삼매에 이르고 부처가 되려는 것이다.

티베트 사며니즘과 혼합된 탄트라 불교가 라마교 밀교의 성애신앙은 힌두교의 샷티신앙에서 육체에 우주적 힘이 있다고 믿는 성애신앙

여신의 화신으로 변형시키는 데 있다. 요가 행자가 신의 화신이듯 그의 파트너는 여신이 되는 것이다. ... 모든 활동은 샷티 여성 편에서 행해진다. ... 요가 행자는 자신의 파트너인 여자 요기를 타라(Tara) 여신의 실체로 생각한다.”

엘리아데는 밀교수행시 “마이투나(Maithuna, 性交)는 입문식의 필수적인 행위가 되므로, 스승(Guru)의 명령에 따라 수도승은 그들 정조의 법칙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시 그 법칙을 준수한다”고 한다.

팔리어 경전에서는 석가모니가 성(性)을 열반을 얻는 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수도사들에 관해 언급했다는 것과, 수도승 마간디카(Magandika)가 석가모니에게 딸 아누파다(Anupada)를 바쳤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이로 인해 티베트의 밀교 승려(라마)들은 성욕주의자가 되었고, 신통력을 터득하여 몸은 불덩이같이 달구거나 물같이 흘러가게 하고, 우박이 내리게 하고 집을 파괴하며, 거미나 뱀, 개구리가 나타나게 하고, 남을 해치는 도술을 행하기도 하였다.

파드마삼바바는 이러한 라마교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첫번째 티베트 밀교사원을 건축한 사람이다. 그는 붉은 모자를 쓴 홍모파의 시조이며,

소리를 이용해 삼매에 도달하려는 구밀에는 진언(Mantra)과 다라니(Dharani)라는 주문이 있다. 진언은 다라니보다 비교적 짧은 주문이고, 대개 옴(Om), 나무(Namo), 흠(Hum)으로 시작하여 사바하(svaha)로 맺는다.

옴 한 글자 속에 천 가지 진리가 들어 있다고 하며, ‘영원한 소리’라는 A, U, M은 모두 복수적 현상계 뒤에 있는 근본적이고 단순한 진리이고, 무한자이며, 불이(不二)의 실재(non-dual-reality)이고 궁극자(the Ultimate)라고 한다.

이러한 진언은 “아마레 아마레, 비마레 비마레, 허메 허메”와 같은 뜻 없는 말과 뜻 있는 말의 혼합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진언 사용 중 마음이 집중되면 무의식적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옴-명상(Om-meditation)은 힌두교 화장터의 신 옴과 같이, 불교에서도 옴 자체가 무한자이며 궁극자가 되기도 한다. 옴-기법 가운데 A는 깨어있는 자아 상태(waking)의 경험이고, U는 꿈꾸는 상태(dream)와 같은 미묘한 경험이고, M은 의식의 깊은 잠에 빠진 상태(deep-sleep)이며, 모든 복수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합적 하나가 된다.

그러나 불교에서 ‘옴’은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명사에 사용되며, ‘Om

namo Amitabhaya Buddhaya’, 또는 ‘Om mani padme hum’등 무수한 주문들이 있다. 지금도 티베트에 가면 ‘Om mani padme hum’을 새긴 마니통을 돌리며 다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

삼매에 달하려는 기술 중 신밀(Mudra·무드라)은 인장과 같이 진실하다 하여 인계(印契)라 하고, 그 목적은 특수한 몸가짐을 통해 부처의 세계와 결합하는 것이다. 무드라의 손모양은 명상, 곧 공포 퇴치, 설법, 예배 등 9가지 제스처가 있다.

16세기 유명한 무드라 수행가로 홍모파의 타쉬라마(Taschlama)가 있다. 그는 불교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여 숨 조절과 요가로 자기 몸을 잠가 두고 남의 몸으로 이사해 들어가거나, 남의 생각을 읽어내고, 원거리에서 투시하고, 빛은 몸으로 대추위를 물리치고, 과거 존재를 파악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신밀을 실행하는 밀교도

나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도 한다. Adi불 밑에는 다섯 명상불(5 Meditations-Buddhas)이 있다. 이 명상불은 역시 아디불과 같은 명상에 잠겨 있다. 이 명상불들을 5자니불(Dhyanibuddha) 또는 5 Jinas(Sieger)라고도 칭한다. 이들은 아디불에서 유출된 부처들이며, 그 부처들의 중앙에 대일여래(Vairocana)가 있다.

만다라는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사방에 모든 부처와 보살을 배열해 놓는다. 이 대일여래는 일반적으로 밀교의 교주로 숭배되고, 홍모파에 의해 우주의 지배자로 숭배된다. 대일여래의 동방에 있는 묘희국(妙喜國)에는 아축불(Aksobhya)이 있다. 아축불은 일체 성내지 않는다는 서원을 세우고 무상도(無上道)를 성취하였다고 하며, 더러움이 있는 청정한 보리심을 나타내게 한다는 부처이다. 이 아축불은 황모파의 최고신이며, 푸른 몸을 가지고 있고 마귀마라를 이겼다고 한다.

서방에 있는 극락정토에는 아미타불이 있다. 그는 대승불교적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여 신봉되는 구세주역 부처이며, 중생을 구제하려는 48원을 세웠다 하여 많은 신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몸 색깔은 페르샤의 해신과 같은 붉은색이다. 남방에 있는 환희국(歡喜國)에는 보생불(Ratnasambhava)이 있다. 그는 일체의 복덕과 재보를 모아 중생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부처로 신봉된다. 그는 황금색 몸을 가지고 있다.

북방에 있는 연화장엄국(蓮華莊嚴國)에는 불공성취불(Amoghastidhi)이 있다. 그는 원만하고 결함 없는 공덕을 구비하여, 능히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큰 소원을 성취케 하여 공(空)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부처다. 그의 몸 색깔은 흑색이며, 4면법의 주인(主)이기도 하다.

만달라는 이 4방불이 각각 4보살에 둘러싸여 있게 하고, 이 16보살에게 모두 ‘옴’으로 시작하는 진언이 엮힌다.

밀교는 이 밖에 일체 중생의 병을 고쳐 준다는 동방정유리국에 사는 약사불(藥師佛)과 그 좌우보살(일광보살과 월광보살) 등, 무수한 신들과 다섯 역사적 인물들을 부처로 숭배하고 있다. 이 밖에 다섯 불제자들과 석가모니 이후 유명한 불교도들, Nagarjuna, Padmasambhava, Tsongkhapa, 제5대 Dalai Lama (1938- 1990), Panchen Lama, Nagas(뱀), Garudas(새), Citapati(해골), Demons(코끼리 또는 악마), Witches(마녀 또는 무당)등이 숭배 대상들이 되었다.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내가 믿나이다

이영훈 | 교회성장연구소 | 224쪽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것,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초신자들은 그 속에 담긴 크고 깊은 뜻을 제대로 배우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무자정 암송하는 것. 바로 사도 신경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신경의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장 끝에는 '우리의 신앙고백'이 있어 묵상과 기도를 돕는다.



앤드류 머레이의 예수님처럼

앤드류 머레이 | 브니엘 | 248쪽

아직도 읽히는 주옥 같은 고전들을 남긴 저자는, 예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이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는 당신께서 과거에 베푸신 일을 회상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할 능력을 주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현재의 실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쏟아져 들어온다.



신화를 찾는 인간

롤로 메이 | 문예출판사 | 424쪽

유명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여든이 넘어 쓴 마지막 저작. 그는 미국인들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를 '신화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의 이러한 원인과 함께, 그 해결책을 '신화를 새롭게 보고 자신만의 신화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를 '잠든 신화(C. S. 루이스)'인 기독교로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붕어빵 전도행진

박복남 | 예수전도단 | 236쪽

붕어빵에 하나님 사랑을 담아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의 삶과 사역 이야기. 영접기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더 중요시하신 예수님, 지속적 돌봄과 교제를 통해 초신자와 어린 교회 공동체를 성숙의 단계까지 이끌어 냈던 사도 바울을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삶과 순종이 전도의 비결임을 보여 준다.



REVIEW

“마음의 누전 현상, 상실감에서 벗어나는 법”

다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을 위한 마음 처방전

관계가 깨졌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첫 반응은 대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상처는 불사조처럼 우리의 삶을 괴롭힌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효약도 없다. 또 상처 회복에도 시간이 걸린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상실감 속에서 상처를 회피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책이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경험한 이들은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그것이 사별이든, 이별이든 상관없이 남겨져 있는 이들에게 그 상실감은 삶의 발목을 잡는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노먼 라이트

박사가 경험적 상담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상실감의 회복에 대한 기간일 것이다. '얼마나 걸릴까?'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언제쯤이면 생각과 감정과 기억들이 다 정리되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소위 '자연적인'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평균 2년 정도이다. '사고나 어떤 원인에 의한' 죽음일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년 정도가 걸린다. 관계 전문가들은 잊기 힘든 기억들이 진정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되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
H. 노먼 라이트
두란노 | 284쪽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이 보통 그 관계의 지속 기간의 절반 정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4년간 지속된 관계의 상실로부터 회복되는 데는 2년이 걸리고, 12년간 지속된 관계의 상실에서 회복되는 데는 6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이 있다.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슬픔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것이다. 또한 명심할 것은 이 경험을 혼자서 이겨 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더 잘 회복될 수 있다. 용기를 갖고 당신의 상처와 마주하라. 그 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이 책은 제1부 깨어진 나를 마주할 용기(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마

주보라), 제2부 깨어진 관계를 마주할 용기(다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라), 제3부 깨어진 자녀를 부둥켜안을 용기(흔들리는 당신의 자녀를 붙잡아 주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은이 노먼 라이트 박사는 결혼, 가정, 아동 전문 치료사이다. 바이올라 대학교와 탈봇 신학교의 교수로 지내면서 40년 동안 상담과 심리학을 가르쳤다. 그는 결혼·가정·소아 분야의 공인 전문치료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망하거나 살해된 유아, 심대 자녀를 둔 부모들을 돌보는 것도 그의 전문 분야이다. 이영인 기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리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야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251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꽃씨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열어주소서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한국교회, 치열한 자기반성과 회개로 재기해야”

종교 본연 역할 하고
이념 상관없이
주리고 병든 자 도와야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김형석
새물결플러스 | 266쪽

광복 7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책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라>가 발간됐다.

저자 김형석 목사는 역사학도로서 대학 강단에도 섰지만, 통일신교에 뜻을 품고 교편을 내려 놓았다.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초대 사무총장과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회장을 역임하며 북한을 100여 차례 방문하는 등 NGO 사역을 펼쳐다 목회자가 됐다.

저자는 서문에서 “성경에서 70은 ‘해방의 수’로 인식되는 만큼,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로서, 올해를 ‘평화통일의 희년’이라 부르기도 한다”면서도 “작금의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평화의 기운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평화통일을 기대하기는

온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 “일어난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역사(Histories)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Historie를 해석하는 ‘Geschichte’로서의 역사(철학적 역사)”를 기술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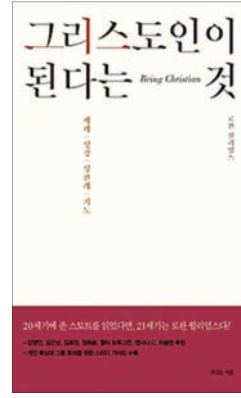
3부에서 저자는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화해자로서의 역할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역할 △통일의 지원자로서의 역할 등을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념에 상관없이 북한과 ‘주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면서, 남북간 화해의 메신저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제가 한국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는 치열한 자기반성과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선다. 모쪼록 이 책이 그 거룩한 움직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대웅 기자

로완 윌리엄스 전 대주교 저작들 번역서 잇따라 발간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로완 윌리엄스
복있는 사람 | 128쪽



신뢰하는 삶
로완 윌리엄스
비아 | 224쪽

로완 윌리엄스(Rowan Williams). 그는 지난 2002년부터 조지 캐리틀 이어 2012년까지 11년간 104대 캔터베리 대주교로 봉직하면서, 영국과 세계성공회를 이끌었다.

윌리엄스는 당시 높은 지지에 힘입어 비잉글랜드 출신(웨일스)으로는 최초로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됐지만, ‘문체적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여성 성직자 임명을 지지하는 ‘개혁적 성향’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같은 비평가나 무신론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이라크 전쟁 등 각종 정치·사회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며 복음적 관심을 견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윌리엄스의 면모만 알고 있는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작가이자 신학자’ 로완 윌리엄스가 찾아왔다. 최근 그가 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Being Christian)>과 <신뢰하는 삶(Tokens of Trust)>이 잇따라 국내에 번역·소개된 것. 두 권의 책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형식이 나 전통들부터, 깊고 다양한 생각거리들을 끄집어내 각각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로완 윌리엄스는 ‘교회 정치’ 이전에 학자였고 작가였다. 케임브리지대 크라이스트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975년 옥스퍼드 워덤칼리지에서 러시아 신학자 블라디미르 로스키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D.Phil)를 받았다. 1978년 성공회 사회 서품을 받은 뒤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거쳐 불과 35세에 영국 여왕이 임명하는 옥스퍼드대 레이디 마가렛 신학교수를 맡았다.

이대웅 기자

커녕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이 함께 모여 드리려 했던 기념예배마저 물 건너가는 등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먼저 1부에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2부에서 한국교회사, 특히 3·1운동을 짚으며 재조명한 다음, 3부에서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언론 기사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적극 인용하며, 역사 부분에서는 전공자로서의 안목이 묻어 나

“문화전쟁”

성, 동성애, 낙태, 환경, 정치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라는 말로는 세상을 설득하기 어렵다

논란이 되는 사회 문제, 특히 기독교와 세상의 관점이 다른 이슈가 터질 때면 흔히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일축해 버리고 만다. 그러나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는 세상이 이러한 기독교의 주장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저자 칩 잉그램은 성, 동성애, 낙태, 환경, 정치와 같이 오늘날 점점 첨예해지고 있는 사회 이슈 다섯 가지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자료 조사와 분석을 제시하여 세상이 알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나 전제를 바로잡아주면서 세상을 향해 논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다음으로,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이슈들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다섯 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대해, 하나님은 섹스를 싫어하시는가? 둘째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되는 것인가? 동성애적 생활방식



문화전쟁
칩 잉그램
생명의말씀사 | 248쪽

은 대안적인 생활방식인가? 한 번 동성애자는 평생 동성애자인가? 모든 기독교인은 동성애 혐오자인가? 셋째 낙태에 대해,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여성이 위험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산모와 아이,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가? 넷째 환경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환경 문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지구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인가 보호할 대상인가?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다섯째 정치에 대해, 교회와 정치의 관계는? 정치적 주제의 설교를 해도 과연 괜찮은가? 교회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가? 등이다.

성, 동성애, 낙태, 환경, 정치. 세상과 기독교 사이에서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다섯 가지 이슈! 치열한 문화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제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쿼어 문화 축제, 개방적인 시대에서의 혼전 순결, 정부의 환경 개발과 환경오염, 낙태를 둘러싼 인권 문제 등 세상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과 부딪칠 때 그 진리를 고수하길 주저하고, 그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 의심하기도 한다.

“너는 네 생각대로 살라.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겠다. 그것이 피차 좋은 일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며 “관용”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특히 세상이 내세우는 주장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주장과 다를 경우,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기독교 내에서도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세울 때, 우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약이 경형하지 못한 신장기능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A(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대리점 모집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향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탁, 어항, 냄세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세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세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봉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술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량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전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존소중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금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공공미, 화학물질, 갈라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금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가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할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향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항산화 세제,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공망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음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에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Tel:(323)316-6815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레오 갤러리아)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번역물인쇄 전문
www.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영범음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2. 전도용 실교서디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영범음
4. 각종 배너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디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시에 주문을 받으실시에는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작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Alex Shin Fleet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South Bay Korean American Pastors Switch Pulpits Pastors share experiences and perks of preaching at different churches

BY RACHAEL LEE

Four Korean American pastors did what they call "pulpit rotations" for three weeks in August, taking turns speaking at each others' ministries. I had the chance to join their de-briefing lunch after the rotation was concluded. Their talks were light-hearted, and the discussion consisted of food preferences, ideal manly body types, -- and of course, what stood out to them during the pulpit rotations, and what they plan on doing in the future.

The four pastors are a part of a small gathering of five churches in the South Bay area called South Bay Together: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PCUSA), Faith Presbyterian Church of Torrance (PCUSA), The Branch (the English ministry of Podowon Baptist Church (SBC)), Crosslife (the English ministry of Gardena Presbyterian Church, an independent Presbyterian congregation), Shalom Presbyterian Church (PCA), and South Bay Mission Church (nondenominational). Only Shalom Presbyterian Church was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pulpit rotations this time around.

One of the first things half-jokingly (half-seriously) mentioned was the "uncomfortable" heat at South Bay Mission Church due to broken air conditioning.

"It was a hostile environment," joked Pastor Billy Song of Torrance First Presbyterian.

"You guys don't need a membership class -- if they stay through the whole service and come back each Sunday in that heat, they're committed members," joined Pastor Ed Kim of Crosslife.

All of the congregations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South Bay Mission Church is the only independent church plant of the four, while Faith Presbyterian Church of Torrance is an English congregation planted by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The rest are English ministrie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The age demographic differed as well, with South Bay Mission Church and The Branch being on the younger



(From left to right: Tim Lee, Ed Kim, Sung Chang, Woogie Kim, Billy Song) Korean American pastors of the South Bay region gathered on September 4 to discuss their experiences of having rotated pulpits for three weeks at other churches.

side -- from their twenties to thirties -- and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and Faith Presbyterian Church of Torrance being on the older side -- mostly married couples from their forties to sixties. Crosslife is also the most multi-ethnic of the four congregations, with some 30 percent of the congregation being Hispanic, African American, or White. Most of the churches have about 40 to 60 members.

Hence, pastors exchanged brief information about their respective congregations before doing the pulpit rotations for the guest speakers to prepare accordingly. Pastor Ed, for example, told the other pastors not to mention any Korean jokes in their sermons, "because a third of the congregation won't get it."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congregation also meant different dress codes for some of the pastors. Pastor Tim, for example, is usually found wearing casual clothes, even when he preaches at his home church; but when he had to guest speak at Faith Presbyterian Church, he dressed up with a button-up shirt.

"I think that's the most formal outfit I have, and I think the last time I wore it was at Good Friday service at Faith Presbyterian," said

Pastor Tim Lee of South Bay Mission Church (SBMC).

Pastor Ed, on the other hand, knew better to dress down at Pastor Tim's church this time around. He said he showed up at SBMC in a shirt and tie the previous time he guest spoke, and "felt very overdressed."

"You could preach in shorts and they probably wouldn't mind," Pastor Tim said regarding SBMC's congregation.

One of the benefits of pulpit rotation was that the congregations had the chance to be exposed to different styles of preaching by different pastors during that period. One ministry even had the chance to be exposed to a topic that they normally couldn't be exposed to by their home pastor. Members of The Branch ministry -- which consists mostly of single young adults and some young married couples -- had asked The Branch lead pastor Randy Choi to hear a sermon on marriage, but Pastor Randy has not married yet himself. He asked Pastor Sung Chang of Faith Presbyterian to preach on marriage, allowing the congregation to receive a message on a topic they normall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A downside to the pulpit rotations, however, was that newcomers visiting the church for the first

time were disappointed that they were unable to hear the home pastor preaching during their visit, according to Pastor Tim. As the pastors also discussed whether they would mind having to miss their home church service to be able to guest preach at another's, Pastor Ed pointed out, "I would want to be there as much as I can though, so that if there are newcomers, even if I'm not in the pulpit, I could at least greet them and say hello."

This gathering of pastors -- South Bay Together -- originally began as a group of Korean American pastors in the South Bay who met regularly to simply share how their ministries are going, and eventually developed into a group of congregations that share ministry together, including going on mission trips and participating in community outreach together.

This was the first time South Bay Together tried the pulpit rotation, and they plan to do it again next year.

Most recently, South Bay Together worked together to provide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 homeless students in the Lawndale School District. They plan to do a toy drive together this upcoming December to give Christmas gifts to children in low-income or homeless families.

"Remaining in PCUSA Is the More Difficult Decision"

Rev. Daniel Lee
commends colleague
pastors in PCUSA

BY JUNHYEONG KIM

Amidst the public discussion that was aroused by Zion Presbyterian Church's recent announcement that it plans to leave the PCUSA, Reverend Daniel Lee posted a statement on Facebook saying, "I feel sorry towards my fellow colleagues of other churches. I hope our issues will not cause any inconvenience or problems for others."

Zion Presbyterian is a part of the Sacramento Presbytery, which differs from other presbyteries in that it revised its Gracious Dismissal Policy in May in a way that makes it difficult for a church to be able to be dismissed from the PCUSA while maintaining its property.

Despite the changes in the policy, however, Zion Presbyterian still decided by a 97 percent majority vote during its most recent congregational meeting in August 30 that it still desires to be dismissed from the denomination.

The overwhelming majority vote comes even as the congregation members understand that leaving the denomination also means losing some \$3 million in church property. The congregation currently consists of some 300 members.

"I want to again thank those who have been blessing our congregation's decision, breathing courage into us, and praying for us," Lee wrote. However, he added, "As the news spread about our decision, my heart became heavy. Our decision is not necessarily something we wanted to brag about. It was simply done by God's grace. It wasn't because we have a special kind of faith or courage or righteousness."

"I felt sorry to the 400 some fellow churches and colleague pastors who remain in the denomination," Lee added. "In some ways, our decision to leave the denomination was an easy one. I think the other Korean churches that decided to stay in the denomination and bring reformation from within made a more difficult and courageous decision."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enduring through others' criticism, misunderstanding, and condemnation in order to reform the denomination. I sincerely hope that our church's decision will not harm or bring added difficulties to those churches," he continued.

"Each church has a different situation and story, so we can't denigrate those who made a decision different from ours. I want to bless those colleague pastors who are fighting a lonely fight of faith. They are lonely warriors of faith that are facing a truly difficult battle."

NexGen's Next New Thing: A Podcast to Expand Its Horizons

BY RACHAEL LEE

NexGen Pastors' Fellowship, which has continually offered events and networking spaces for Asian American pastors since its beginnings in 2011, recently launched a new initiative: a podcast.

"We realized that there's a limitation to the events we've been holding -- if you want the information, you have to actually be there," explained Pastor Sam Koh of Hillside LA, one of the three pastors who lead NexGen. "We also realized that NexGen is not just a Southern California network anymore -- we've become a network that reaches nationwide, and a lot of the pastors from different states aren't able to come down here to

attend our events."

Podcasts will explore various topics, including the dynamics betwee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pastors in the Asian American context, the theme on which NexGen was originally started. Prominent Asian American church leaders will also be highlighted, particularly those who are serving in the Caucasian or multi-ethnic context.

"We want to ask them to share what they are doing there, and how they're received there, because these are things that most pastors don't get to hear, since most of their pastor friends are Asian Americans," Koh explained.

The first podcast, which was posted online on Tuesday, featured an interview with Gary Lindblad,

the dean of the business school at Biola University, who spoke on the importance of faith and work for lay people. This particular podcast served not only to launch NexGen's podcast initiative, but also to prepare the group for the upcoming "Gospel and the City" event hosted by TogetherLA, with which NexGen is partnering.

Lindblad discussed how the idea of radical faith can be integrated in a "secular" work place, and advised pastors on expanding the idea of "loving our neighbor" from being exclusive to the immediate home neighborhood, to being pervasive into the work context.

"You can have a barbecue, invite people over, get to know the people around [your home]," Lind-

blad said. "But my neighbor that I spent eight to ten hours per day with is the neighbor sitting next to my cubicle ... Your neighbor is your customer, your client, your colleague."

NexGen hopes to post podcasts once every two months. The first podcast can be found at www.nexgenpastors.com/podcast/.

Meanwhile, the upcoming Gospel and the City gathering, taking place on September 16 at Biola University, will focus on how Christians in all fields can use their work places as contexts to be witnesses for the gospel, and is the first event TogetherLA will be hosting since the February city-wide gathering, which brought together numerou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Korean American Non-Profits to Gather in One Place for First Non-Profit Fair

BY RACHAEL LEE

Open Bank's charity foundation, Open Stewardship Foundation, will be hosting a non-profit organization fair called "Love of Sharing" on September 19, during which representatives of 20 local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will be present.

"As Open Bank's 10th anniversary, we were thinking of what might be a meaningful way to celebrate," said Open Bank CEO Min Kim. "As we've been supporting numerous non-profit organizations over the past few years, we realized that so many of these people are doing lonely and difficult work, hidden from the attention of other people."

"Many of them are in need of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volun-

teers," she explained.

Kim added that she hopes this fair would be "an opportunity for non-profits to be promoted and known to the community, and for them to be encouraged and appreciated for their work."

The fair will take place from 10 AM to 3 PM at the Moseley-Salvatori Conference Center at Good Samaritan Hospital. Seminars led by Assemblywoman Young Kim and Thanksgiving Church lead pastor Hong Joo Choi will start off the fair in the morning, followed by a performance by God's Image, a youth worship ministry comprised mostly of Korean Americans. The afternoon will feature booths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will be featured for the event.

A play space for children, including balloon and painting boo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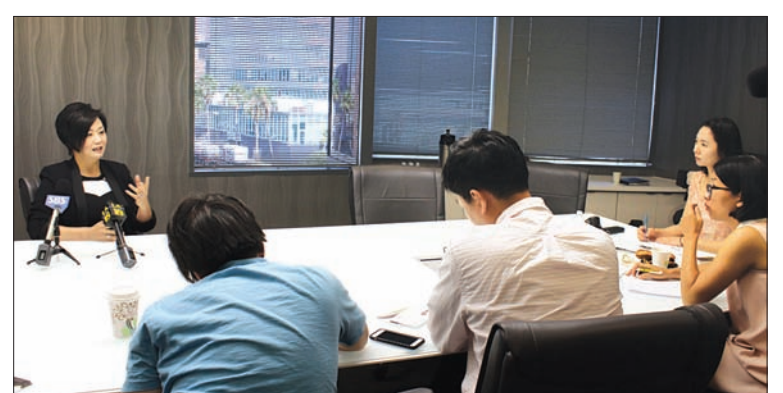
will also be made available.

"I want to especially encourage families to come all together," Kim said.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to teach our children to help our neighbors who are in need."

Open Bank launched the Open Stewardship Foundation and Open Stewardship Program in 2011 to give 10 percent of its annual profit to civic, non-profit, and Christian organizations each year. Since then, it has donated tens to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each year to dozens of non-profits. \$374,200 was given to 73 different non-profit organizations most recently in 2014.

An estimated \$1.2 million has been donated by Open Bank through this effort since 2011.

Some previous recipients of the Open Stewardship Program



Open Bank CEO Min Kim (left) discussed the details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fair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Wednesday.

include Duranno Father School, USA;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Korean American Coalition (KAC); Choong Hyun Mission Church Shalom University;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KYCC); SON

Ministries; The Well Mission; Young Nak Outreach & Transformation Foundation (YNOT); Korean Resource Center;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 and Milal Mission of Southern California; among many others.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 | |
|-------|--------------|-------------------------|
| 세크라멘토 | 916.363.2378 | Smile Home Shopping |
| 하와이 | 808.947.8086 | Herb Land |
| 달라스 | 972.620.2900 | Royal Health Department |
| 시애틀 | 206.229.5466 | Health Village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